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개표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개표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개표

완성된 이름

개표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차표 또는 입장권 따위를 들어가는 입구에서 검사함.

요약 연대표

표기	20세기	현재
개표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차표 또는 입장권 따위를 들어가는 입구에서 검사함.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3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6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개표'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차표 또는 입장권 따위를 들어가는 입구에서 검사함.



개표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개표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개표 사전 표기 요약	—	—	—	—	—	● →
改票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1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개표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개표, 改票



개표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변화

‘개표’는 20세기에서부터 한글로 표기된 ‘개표’나 한자로 표기된 ‘改票’로 나타난다.



문헌 속의 개표

전체 용례 3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개표, 改票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개표, 改票



출처 1974 동아일보 11월15일 11면

용례 01

66 문헌 용례

주말인 × 일 밤 9시 5분 용산역. 개표가 시작되자 승객들은 「자리」를 잡기 위해 구름다리를 달렸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80 조선일보 9월 2일 4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발 하나 제대로 비집고 들어설 틈이 없으며, 매표와 개표 차례를 기다리는 두터운 줄 사이로 통행하기도 거북한 형편입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66 문헌 용례

버스 탈 때 改票 안 한다 교통부 터미널 승강장 자유 출입 시달, 오는 7월부터 전국의 모든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개표제가 없어진다. 교통부는 고속 및 시외버스 이용객들이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표를 폐지키로 하고 이 같은 개선 지침을 각 시도에 22일 시달했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개표의 보충 설명

‘改票’와 ‘改票하다’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그 용례가 확인되는데, ‘改票’와 ‘改票하다’가 쓰일 자리에 ‘개찰(改札)’, ‘개찰(改札)하다’가 쓰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改票’는 증서를 고쳐 씌운 뜻하는 ‘改標’가 쓰일 만한 자리에서도 두루 쓰인다. 그리하여 문서의 틀린 곳을 바로잡음, 채권 문서의 주요 기재 내용을 고쳐 채무 관계의 내용을 바꿈, 전당포의 전당 표를 가지고 질물을 찾거나 이자를 내고 증서를 갹신하는 일 등에도 ‘改標’ 대신 ‘改票’가 쓰이는 일이 많았다.

개표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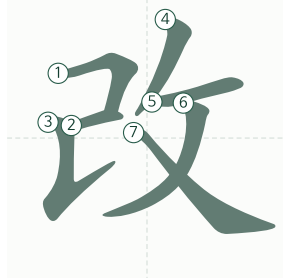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개표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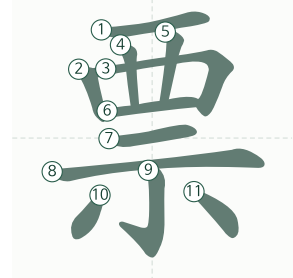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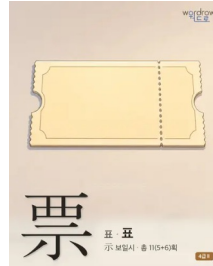
뜻·음 고칠 개
총 7획 · 부수 攴



hanja.wordrow.kr/한자/改/

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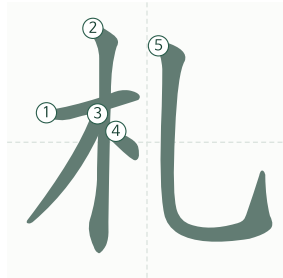
뜻·음 표 표
총 11획 · 부수 示



hanja.wordrow.kr/한자/票/

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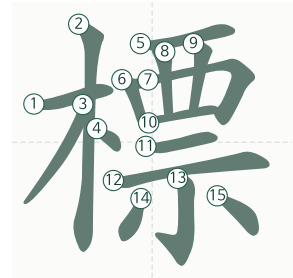
뜻·음 편지 찰
총 5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札/

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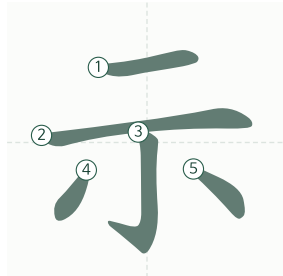
뜻·음 표할 표
총 15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標/

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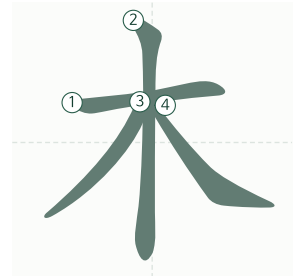
뜻·음 보일 시
총 5획 · 부수 示



hanja.wordrow.kr/한자/示/

木

뜻·음 나무 목
총 4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木/